MZ세대 에너지 담아 브랜드 이미지 제고 앞장

광주은행,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

지역 청년 30명과 공감·소통 여정 마무리
ESG 사회공헌 등 다양한 팀 프로젝트 수행
460명 인재 배출…제16기 내년 3월 모집

광주은행이 최근 본점에서 지난 6개월 간 ESG 사회공헌 등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 '광주은행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개최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단이 ESG 사회공헌 등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광주은행 홍보에 앞장서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은 2일 "최근 본점에서 '광주은행 제15기 대학생 홍보대사 해단식'을 열고, 홍보대사들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5월 초 선발된 15기 홍보대사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생 30명으로, ESG 사회공헌 활동과 브랜드 홍보,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MZ세대 특유의 감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홍보대사들은 ▲고3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대학 생활 꿀팁 및 금융교육 ▲중복·말복맞이 삼계탕 무료배식 봉사활동 ▲광주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홍보 부스 운영 ▲광주천 플로깅 봉사활동 등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36회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해단식에서는 조별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과 활동 소감 발표가 이뤄졌으며, 수료증 전달과 함께 우수팀·우수 홍보대사 시상도 진행됐다.

6개월 대장정을 마무리한 15기 한 홍보대사는 "처음에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 기대가 컸는데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그 과정 자체가 참 재미있고 의미 있음을 느꼈다"며 "함께 활동한 홍보대사 친구들과 헤어지게 된 것이 아쉽지만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진로를 더 깊이 고민하고 꾸준히 준비해 나가고 싶다"고 심정을 밝혔다.

광주은행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은 2008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460명 이상의 지역 청년 인재를 배출했다.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청년 참여형 프로젝트와 ESG 기반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는 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제16기 대학생 홍보대사를 오는 2026년 3월 중 모집할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15기의 공식 활동은 끝났지만, 여러분은 언제나 '광은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다"라며 "6개월간 쌓은 경험이 앞으로 큰 자산이 되길 바라며 더 넓은 세상에서 자신만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길 응원한다"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임채만 기자

농어촌公 'K-농촌관광' 매력 전 세계에 알렸다

글로벌 서포터즈 7개월 대장정 완료
14개국 인플루언서 참여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지난달 29일 '2025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또바기팜족)' 해단식을 갖고 7개월간의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5월 14개국 20명의 인플루언서(총 팔로워 92만명)로 출범한 서포터즈는 전국 농촌 여행지 9곳을 누비며 한국 농촌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렸다.

해단식에서는 서포터즈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19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상위 4명에게는 최우수상(1명)과 우수상(3명)이 각각 수여됐다.

서포터즈는 활동기간에 공사가 준비한 9회의 농촌여행과 더불어 '의성 농촌크리에이투어' 등 관계기관 행사에 참여했다. 이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농촌여행 후기 게시물은 2천148건에 달하며 국내외에서 약 330만회 이상 확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외국인의 시선에서 경험하는 농촌 체험이 세계 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가평 '잣 향기 푸른마을'에서의 '엠티(MT) 문화 체험'(상호작용 76만회) ▲강원 양양 '38 평화마을'에서의 '여름 서핑 체험'(상호작용 75만회)은 한국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며 높은 공감을 끌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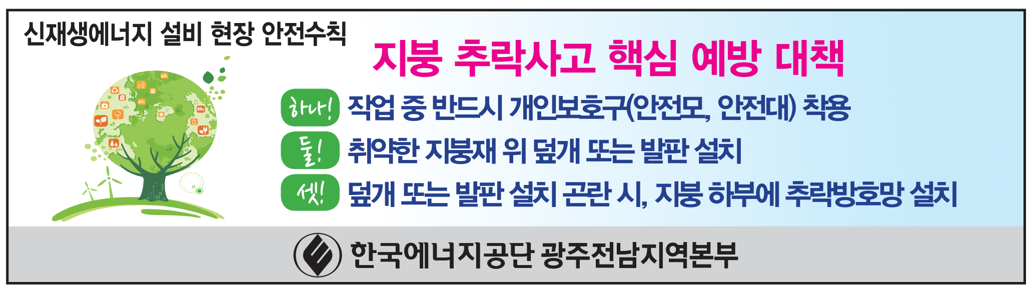
유명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기념해 호주 출신 인플루언서 '챔보(Chambo)'와 제작한 '5만원 드리면' 시리즈는 조회 수 82.6만회를 기록하며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경주 세심마을에서의 한국 음식 만들기 체험과 한우 소 갈비찜 먹방을 담은 이 영상은 농촌 미식 관광에 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다양한 국적의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콘텐츠가 한국 농촌의 숨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케이(K)-농촌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단식과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의 활동 영상은 '또바기팜족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ttobagifarm.offici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채만 기자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5일 지역경제 공동세미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전략' 주제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 개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과 오는 15일 오후 2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 전략'을 주제로 2025년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전략 및 정책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주제발표(1부)와 정책토론 및 질의응답(2부)으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찬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현황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문연희 광주연구원 센터장이 '광주지역 청년 실태와 일자리 정책 방안'을, 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전남지역 노동력 고령화 대응방향'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박완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의 사회로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김영선 전남연구원장,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임채만 기자

한전KDN, 제2차 ESG자문단 개최

한전KDN은 2일 "전날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소재 본사 다목적실에서 '2025년 제2차 ESG 자문단(자문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KDN이 ESG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정책 제언, 리스크 검토 등 전략 자문을 위해 운영하는 자문단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의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문성 기반의 신뢰성 높은 ESG 경영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

상반기 1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ESG 경영전략 고도화 결과 보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결과 보고 ▲2025년 연간 ESG 종합성과 ▲2026년 ESG 주요 이슈 공유 및 개선점에 대한 활발한 자문이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후 관련 전담 조직 신설에 따른 기후 데이터 체계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임채만 기자